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미지 분석*

박 선 미**

Analyzing Images of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n Geography」 Textbooks*

Sunmee Park**

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속한 지방이미지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160개 시·군중에서 112개 시·군은 탐구 사례 지역으로 다루어졌고, 48개 시·군은 한 차례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탐구 사례 지역으로 서울, 제주, 부산, 강릉, 평창, 인천, 대구, 울릉도는 10회 이상 다뤄졌는데, 그 중에서 서울이 46회로 가장 많았다. 둘째, 탐구 주제는 자연 환경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도시 생활, 산업 발달, 문화 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요소 중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많이 제시되었다. 셋째, 수도권의 지방이미지는 한국의 중심지이자 도시 경관,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그려졌다.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의 광역시의 이미지는 지방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고, 자연 환경과 도시 경관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중소 도시와 군의 이미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과 달리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곳이자 농·어·목축업이 발달한 곳으로 제시되었다.

주요어: 수도권, 비수도권, 한국지리 교과서, 지방이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images of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are stereotyped in the textbook of 「Korean Geography」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ut of the 160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112 cities and counties were covered as case study regions, while 48 cities and counties were not covered at all. Seoul, Jeju, Busan, Gangneung, Pyeongchang, Incheon, Daegu, and Ulleungdo were covered more than 10 times, with Seoul being the most frequent(46 times). Second, the topics explored were most often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followed by urban life, industrial development, and cultural resources. Among the normative elements, efforts to build sustainable communities were often presented. Third, the image of the metropolitan area was portrayed as the center of Korea, with a strong urban landscape and cultural influence. The images of large ci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such as Busan and Daegu, were portrayed as serving as regional hubs and combining natural environments and urban landscapes. The images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were presented as places with unique natural environments and developed farming, fishing, and livestock industries, unlike the metropolitan areas and large cities.

Key words: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Korean Geography Textbook, Regional Image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sminha@inha.ac.kr

I. 들어가며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50.7%에 달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지방소멸에 직면했거나 인구감소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의 군(郡) 단위 지역으로,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 단위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의 70.5%를 차지했다(박선미, 2023). 2024년에는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광역시의 '구'도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이상호, 2024).

지역 위계 피라미드가 중심부로서 수도권과 주변부로서 지방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은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으로 치환되었고 비수도권으로 통칭되었다(임영호, 200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항대립적 관계의 한 축은 상징적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서 권력에서 배제된 다른 한 축에 대해 우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표현된다(임영호, 2002; Hall, 1997, 229). 지방은 비수도권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면서 중앙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인들이 모여 사는 낙후된 변방이라는 부정적 편견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양민옥 외, 2015, 268). 서울과 지방 간 일차리와 주거, 결혼과 육아, 문화와 삶의 질 등을 포괄하는 전 방위적인 격차는 지방과 서울의 구분 짓기를 고착화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되었고 점점 정서적, 문화적인 측면까지 확대되었다(주제원, 2020, 187).

지역이미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 갖는 일종의 사회적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Martin and Eroglu, 1993). 특정 지역 이미지 형성에는 개인적 경험, 뉴스, 상품 이미지, 혹은 역사적 사건 등 여러 정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작용한다. 직접적인 체험은 물론이고 교과서나 도서, TV, 인터넷, 영화, 연극 등을 통한 정보, 친구나 친지들이 전해 주는 소식 등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 기술된 각 지역에 관한 내용은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인식되

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각 지역의 집합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지역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지역이미지 연구는 주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지방 수준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이미지 연구는 주로 특정 지방의 이미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박천일·안민호, 2005; 최영재, 2009; 김정현, 2004; 고영철·최낙진, 2008; 문성민, 2010).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에 속한 지방이미지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를 위하여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탐구 사례로 다룬 각 지방의 빈도와 쪽수를 조사하고 해당 지방에 대한 탐구 항목에 기초하여 그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한국지리」 교과서 구성 요소 중 특정 지방을 대상으로 한 탐구 활동 자료와 지역을 소개하는 다양한 심화·보충 자료로 한정된다.²⁾ 교과서 본문텍스트는 특정 지방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 지방 명만 나열하는 수준에서 기술되는 경우가 많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과서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다른 지방의 빈도와 쪽수는 각 지방에 관한 텍스트 자료와 시각자료(사진, 삽화 등)를 문장 단위, 장면 단위로 산정하여 총합한 후 시·군별 비중을 산출한다. 시각 자료 중 텍스트의 보조 자료로 제시된 지방명이 들어간 지도나 통계자료, 도표의 경우 중복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제외한다.³⁾

지방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이미지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측정 항목을 추출하고 교과서 파일럿 분석을 통해 수정·보완한 후 분석틀을 마련한다. 분석틀에 따라 지역별·측정 항목별 빈도를 산출하고, 그 빈도 기저에 내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이미지를 분석한다. 시·군 수준의 지역이미지는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를 종합한 결과, 탐구 사례 지역으로 2회 이상 제시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II. 지방의 의미와 지방이미지 분석틀

1. 지방의 의미

지방은 산맥, 하천 등의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구분된 정치·사회적 행정 단위이자, 각기 독특한 문화적 독자성과 개별성을 확보한 삶터로 규정된다.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기도는 기준 지표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역의 경계 설정도 달라진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산줄기, 고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함경도 안변군과 강원도 회양군 사이에 있는 철령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북쪽을 관북, 서쪽을 관서, 동쪽을 관동 지방으로 구분하였다.……관동 지방의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나눈 경계는 대관령이며, 경상도 일대를 가리키는 영남 지방은 조령(문경 새재)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영남 지방은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호남 지방과 구분되며……(미래엔, 2019, 174.)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의 명칭은 조선 시대의 행정 구역과 관련이 있다. 관북 지방은 조선 시대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함경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관서 지방은 평안도, 관동 지방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경기 지방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한다.……전통적 지역 구분의 일부는 여전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이 의미하는 공간적인 범위는 변화하여 왔다.(천재교과서, 2019, 176.)

지방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중앙의 관계를 수평적인 것으로 보느냐, 혹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중앙과 지방을 수평적 관점으로 본 경우 지방은 독자성과 개별성을 확보한 정치·사회·문화적인 단위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수직적이고 종속적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수도 서울로 상징되는 중앙과 대비되는 주변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때 ‘중앙은 단지 수도=서울이라는 공간적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이자 표준으로 표상되고, ‘지방’은 중앙과 대칭되기도 중앙 중심의 불평등 구도를 재생산하고 중앙의 헤게모니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정된 타자로

편취된다(이훈상, 2000; 이용기, 2015).

먼저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본다면 지방은 경제화와 내적 질서화 과정에서 일정 시간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 실제적 공간이자(Harvey, 2009), 행정적이고 정치적 질서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닌 정주공동체이다(안상준, 2011). 지방은 자연을 인간의 삶으로 끌어안으며 오랜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욕망, 문화와 관습이 녹아든 독자성과 개별성을 지닌 삶터이자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심장박동, 애환심이 어우러져 빚어낸 문화적 독특성을 지닌다(Schorn-Schütte, 1984).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은 중앙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주변화한 곳이 아니라 특수성을 지닌 정주공동체로 간주된다. 서울도 ‘서울지방법원’과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한 지역성을 지닌 하나의 지방으로 취급된다.

다른 지방과 경계로 구분되고 지역성을 공유하는 실체라는 의미의 지방은 전통적인 지역 개념과 유사하다. 「한국지리」 교과서는 지역을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혹은 ‘주변의 다른 곳과 지리적 특성이 구분되는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곳과 구분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계를 가진 실체’라는 지방 개념과 비슷하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지방과 지역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지리」 교과서는 ‘남부 지역’, ‘남부 지방’ 등의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 그러나 전통적 지역 개념이 지역의 변화와 다층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되면서(김병연, 2018), 지방 개념과 점차 차별화되었다.

장마 전선이 남부 지역에 머물 때 중·북부 지역은 오호츠크 해기단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지속되며 장마전선이 중·북부 지방으로 북상하면 남부 지역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나타난다.(천재교과서, 2019, 79.)

겨울이 추운 북부 지역의 김치는 싱겁고 고춧가루를 적게 사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부 지역은 김치가 쉽게 시어지므로 짜고 매운 편이다.(천재교과서, 2019, 76.)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남부 지방은 김치가 쉽게 시어지기 때문에 짜고 맵게 담갔으며, 기온이 낮은 북부 지방은 싱겁고 담백하게 담갔다.(미래엔, 2019, 70.)

한편, 지방은 중앙과 대비되는 행정단위로서 규정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은 오래 전부터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 서울이 해당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 등에 의해 그 특성과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김병철, 2013).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 등 대도시 위주의 성장과 신중공업도시의 급성장, 인구 25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의 정체라는 특징을 보였다. 서울은 중심부, 지방은 주변부라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1980년대까지 지방 대도시는 각 지역의 중심지로 기능하였고, 각 지방에는 명문고·명문대가 존재했으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1998년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은 심화되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은 국제 경쟁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서울과 서울을 둘러싼 지역만이 성장하는 수도권 극점사회(summit society)로 치달을수록 지방거점도시들은 지방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나진희·류용재, 2023, 3), 중소도시는 물리적 쇠퇴와 인구 유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쇠퇴하였다. 2005년과 2015년 사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지방거점 도시의 매력도는 점점 떨어졌고 중심성도 감소하였다. 심지어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도 2024년부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이상호, 2024). 그 과정에서 지방은 수도권과 대비되는 비수도권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 지방이미지 분석틀

지역이미지는 장소, 문화, 사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의 총체로써(Fan, 2006), 대체로 국가 혹은 도시이미지 연구에 집중되었다. 국가이미지와 도시이미지는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간 범위와 분석 목적에 따라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

국가이미지의 구성 요소로는 정치적 안정성, 민주적 제도, 경제 수준, 문화 수준, 자연환경, 국민성, 군사력, 자국과의 관계 등이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Scott(1966)은 정치, 경제, 국민성, 문화, 자연환경을 꼽았고, Orbaiz and Papadopoulos(2003)은 생활 수준, 부(富) 수준,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사회 안정성 및 자국과의 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한충민(1993)은 문화 발전 정도, 역사와 전통, 산업화 정도, 부유함의 정도, 민주화 수준, 사회 안정성, 국민의 근면성, 교육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도시이미지는 국가이미지와 달리 주로 문화, 교통인프라, 공원, 멋진 건축물, 쇼핑센터, 대학 등 인지적 요소와 편리함, 부유함, 젊음, 활기참, 다양성, 화려함, 미래 지향성, 정감, 전통, 따뜻한 등의 정서적 요소들이 언급된다. 안민호·박천일(2006)은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로 구성된 총 31개의 이미지 요소를 이용하여 서울, 부산, 춘천, 뉴욕, 도쿄, 북경, 런던, 파리, LA 등 9개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뉴욕과 도쿄처럼 현대적인 거대도시이지만 뉴욕과 도쿄보다 역동적이면서도 공해와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도시라는 이미지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국가이미지와 도시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연구 목적과 공간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인지적 요소, 규범적 요소, 감정적 요소로 범주화된다. Boulding(1956)은 국가이미지 측정 항목을 인지적 요소, 규범적 요소, 감정적 요소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 측정 항목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주로 특정 국가의 산업 및 기술수준 등 경제 발달이나 정치적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규범적 요소는 주로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성, 시민의식 등을 묻는 측정 항목으로 조직된다. 감정적 요소는 특정 국가와 국민 또는 특정 도시와 시민에 대한 신뢰도, 친근성 등 감정적 반응을 묻는 측정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Boulding의 국가이미지를 측정하는 항목 중 ‘식민지배하지 않은/식민지배한’과 내전 여부를 묻는 ‘평화/분쟁’ 항목과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적은’,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인/우호적이지 않은’ 등을 삭제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 지방과 비수도권 지방의 이미지 분석이라는 목적에 맞게 조정한 후 1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2인이 파일럿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정 지방에 대한 신뢰성이나 친근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인지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만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에 적합하게 ‘민주적 제도’를 ‘정책 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력’

표 1.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방이미지 분석틀

요소	인지적 요소					규범적 요소		
측정 항목	산업 발달	도시 생활	촌락 생활	문화 자원	자연 환경	국토균형 발전제도	정책결정 방식	공동체를 위한 노력
하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산업 발달 • 공업 발달 • 공업 쇠퇴 • 농·어·목축업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발달 • 중심지 역할 • 도시경관 (구조) • 도시 혐오 시설 • 도시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촌락 경관 • 저출산·고령화 문제 • 청장년층 인구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문화 자원 • 현대적 문화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자연 환경 • 풍부한 천연 자원 • 환경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발전 제도 • 거점 개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의사결정 • 하향식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지속가능 발전노력 • 인권존중 • 시민의 공동체 의식 • 공동체 의식 저하 • 국제사회 문제참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항목을 재조정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이미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III. 지역별·측정 항목별 빈도

1. 지역별 빈도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특정 지방을 다룬 탐구 사례는 431번이고, 이들 사례가 차지하는 분량은 135.22 쪽이다. 우리나라 전체 160개 시·군의 약 70%인 112개 시·군은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되고, 48개 시·군은 탐구 사례로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는다. 빈도를 기준으로 보면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수도권이 339회로 수도권 59회보다 훨씬 많이 제시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시·군이 280회로 광역시·특별시 59회보다 더 많이 제시된다. 분량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역시·특별시보다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연환경을 다룬 대단원 「II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과 인문 환경을 다룬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V.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빈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한 빈도는 인문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 46회인 반면, 자연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는 16회에 불과하다. 분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문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 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한 분량은 20.01쪽이나 자연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는 4.96쪽에 불과하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비수도권의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탐구 사례로 제시한 빈도와 분량도 자연 환경을 다룬 대단원보다 인문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 더 많이 더 비중 있게 제시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이 사례로 제시된 빈도는 인문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 69회이고 자연 환경을 다룬 대단원에서 110회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역시·특별시는 자연환경을 다룬 대단원보다 인문환경을 다룬 대단원의 탐구 사례로 더 빈번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표 2. 수도권·비수도권 탐구 사례 지역 빈도와 분량

지역	빈도(회)		분량(쪽수)		
	빈도(회)	비율(%)	분량	비율(%)	
수도권	92	21.3	35.36	26.2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59	13.7	17.4	12.9
	시·군	280	65.0	82.46	60.9
합계	431	100	135.22	100	

표 3. 대단원 특성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탐구 사례 지역 빈도와 분량

지역	빈도(회)				분량(쪽수)				
	II-III대단원 (자연환경 관련)		IV-V대단원 (인문환경 관련)		II-III대단원 (자연환경 관련)		IV-V대단원 (인문환경 관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분량	비율(%)	분량	비율(%)	
수도권	16	11.9	46	32.6	4.96	12.9	20.01	41.0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시	9	6.7	26	18.4	1.81	4.7	10.22	20.9
	시·군	110	81.5	69	48.9	31.82	82.5	18.62	38.1
합계	135	100	141	100.0	38.59	100.0	48.85	100.0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시·군은 자연 환경을 다룬 대단원의 탐구 사례로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 빈도를 보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 사례 지역으로 강원(76회)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서울(46회), 경북(35회), 경기, 충남, 전남이 각각 34회씩 제시된다. 울산, 광주, 대전, 세종은 10회 미만으로 다루어진

다. 시·도별 분량을 보면 서울이 20.26쪽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강원, 경북, 제주가 10쪽 이상에서 다루어진다. 이는 서울과 제주의 경우 탐구 사례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 빈도를 시·군별로 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0회 이상 다루어진 곳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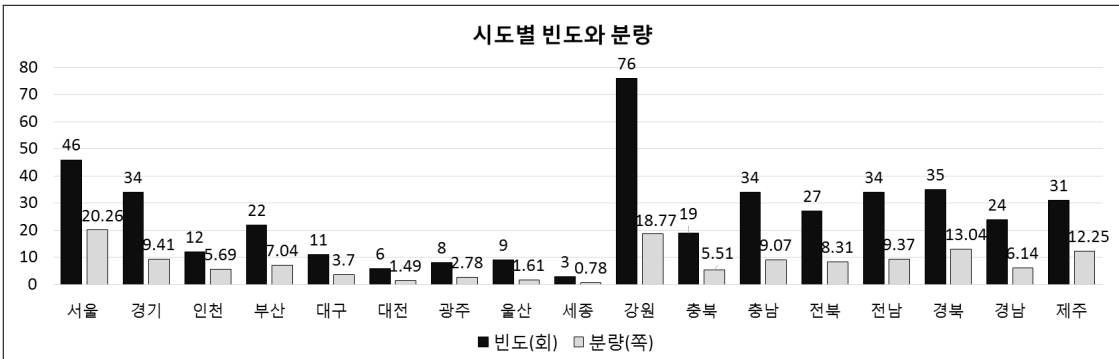


그림 1. 시·도별 빈도와 분량

표 4. 시·군별 탐구 사례 지역 빈도

빈도	시·군명
10회 이상 (9개 시·군)	서울,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 강릉, 평창, 인천, 대구, 울릉
5-9회 (16개 시·군)	울산, 광주, 정선, 태백, 화천, 단양, 안산, 대전, 영월, 안동, 청주, 아산, 태안, 순천, 김해, 창원
2-4회 (47개 시·군)	수원, 고양, 성남, 시흥, 파주, 이천, 평택, 속초, 삼척, 동해, 양양, 원주, 철원, 세종, 천안, 제천, 청원, 충주, 서산, 공주, 논산, 당진, 보령, 청양, 김제, 군산, 무주, 임실, 전주, 고창, 부안, 완주, 정읍, 담양, 해남, 구례, 신안, 보성, 완도, 진도, 경주, 구미, 포항, 남해, 청송, 경남 고성, 통영
1회 (40개 시·군)	가평, 광주, 구리, 김포, 여주, 오산, 의왕, 포천, 화성, 강원 고성, 양구, 인제, 춘천, 홍천, 금산, 부여, 예산, 홍성, 남원, 순창, 진안, 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여수, 영광, 영암, 함평, 문경, 영양, 의성, 칠곡, 거제, 사천, 산청, 창녕, 하동, 함양
0회 (48개 시·군)	과천, 광명,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용인, 의정부, 하남, 횡성, 괴산,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계룡, 서천, 익산, 장수, 목포, 무안, 장흥, 화순, 경산, 고령, 김천, 봉화, 상주, 성주, 영덕, 영주, 영천, 예천, 울진, 청도, 거창, 밀양, 양산, 의령, 진주, 함안, 함천

제주, 부산, 강릉, 평창, 인천, 대구, 울릉이다. 5-9회 다뤄진 곳은 울산, 광주, 정선, 태백, 화천, 단양, 안산 등 16개 시·군이다. 2-4회 다뤄진 곳은 47개 시·군이고, 한번 다뤄진 시·군은 40개이다.

2. 측정 항목별 빈도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지역 사례는 인지적 요소에 관한 것이 규범적 요소에 관한 것보다 훨씬 많다. 인지적 요소 중에서는 자연 환경에 관한 탐구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도시 생활, 산업 발달, 문화 자원 순으로 나타난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한 자연환경과 관련된 탐구 사례가 148회로 가장 많이 제시된다. 그리고 도시 생활의 중심지 역할, 도시 경관과 문화 자원 중 전통적 문화 자원이 30회 이상 다루어진다. 그리고 교통 발달, 농·어·목축업 발달, 공업 발달과 현대적 문화 경관, 풍부한 천

연 자원, 촌락 경관도 20회 이상 제시된다. 반면 공업 쇠퇴, 도시 혐오 시설, 저출산·고령화, 환경 위기 등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된 하위 항목에 관한 지역 사례는 10회 이하로 제시된다. 규범적 요소에 관해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국토 균형 발전 제도, 정책 결정 방식 순으로 나타난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 중에서도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에 관한 탐구 지역 사례가 47회로 가장 많이 제시된다.

IV. 탐구 항목을 통해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미지

1. 수도권 지방의 이미지

수도권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중심지 역할, 도시경관(구조), 교통 발달과 같은 도시 생활 항목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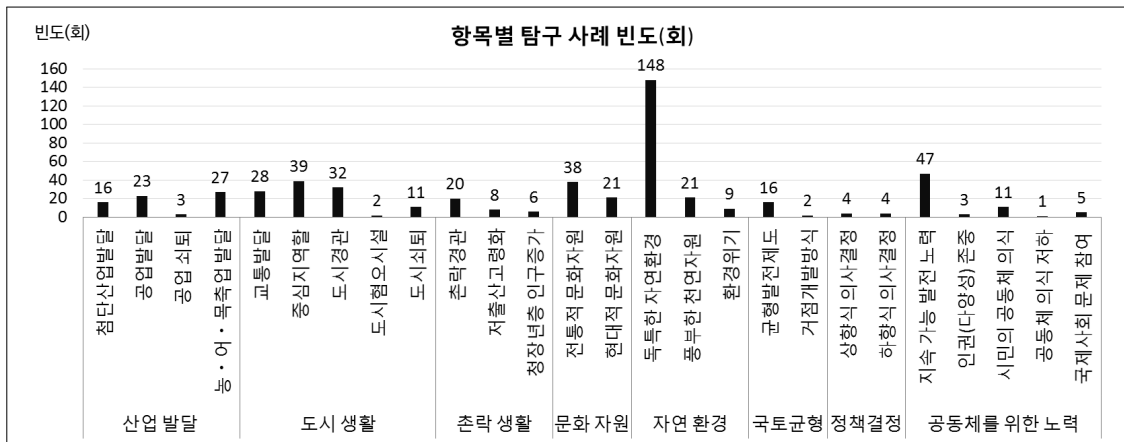


그림 2. 항목별 탐구 사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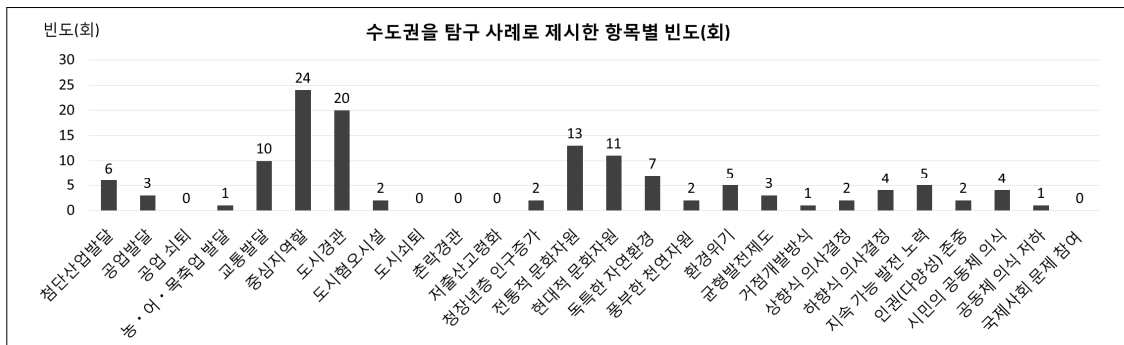


그림 3. 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한 항목

통적 문화 자원, 현대적 문화 자원과 같은 문화 자원 항목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그리고 첨단 산업 발달, 환경 위기,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의 탐구 사례로도 소개된다. 철거재개발 등과 관련된 하향식 의사결정, 쓰레기 매립장·화력발전소와 같은 도시혐오시설,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공동체 의식 저하 관련 항목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수도권만을 탐구 사례로 다룬다. 반면, 공업 쇠퇴, 도시 쇠퇴, 촌락 경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제 사회 문제 참여 항목의 경우 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수도권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지니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한국의 중심지로 역할 하는 도시이미지로 그려진다.

수도권으로 분류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이미지에 차이가 나타난다. 첨단적, 현대적, 중심지, 도시라는 수도권의 전반적 이미지는 서울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서울은 중심지 역할, 도시 경관, 현대적 문화자원, 첨단 산업 발달, 교통 발달, 전통적 문화자원, 환경 위기, 균형발전제도,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 시민의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한 항목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그 중에서 중심지 역할, 도시 발달, 첨단 산업 발달 등의 탐구 사례로 많이 제시되는데, 이는 주로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중심지 이미지와 관련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중심지 이미지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의 중심지

역할 항목에 대한 24회 탐구 사례는 모두 서울이 대상이다.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사례 지역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도시 경관에 관한 탐구 사례로도 수도권이 20회 제시되는데, 서울(12회) 경기(5회), 인천(3회) 순이다. 문화 자산의 경우 수도권 전체로 보면 전통적 문화자산(13회) 사례가 현대적 문화 자산(11회) 사례보다 많지만, 서울은 전통적 문화 자산(4회)보다 현대적 문화 자산(6회)의 탐구 사례로 더 많이 제시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현대적 문화경관보다 전통적 문화 경관의 사례로 더 많이 제시된다. 산업 발달 항목 중 첨단 산업 사례로 서울(4회), 경기(2회)가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되고, 인천은 제시되지 않는다. 탐구 사례로 제시한 횟수는 많지 않지만 공업 발달, 농·어·목축업 발달, 도시 혐오 시설, 청년층 인구 증가, 전통적 문화 자원, 독특한 자연환경, 풍부한 천연 자원 항목은 서울보다 인천과 경기를 사례 지역으로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탐구 사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은 전통적 문화 자원, 교통 발달, 도시 경관, 독특한 자연 환경, 현대적 문화 자원, 하향식 의사결정 등의 항목의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다. 경기도는 주로 도시 경관, 교통 발달, 전통적 문화 자원, 현대적 문화 자원, 독특한 자연 환경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그 밖에서 청장년층 인구 증가, 환경 위기, 첨단 산업 발달, 공업 발달과 관련된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다. 경기도의 도시 중 전통적 문화 자원과 관련하여 수원,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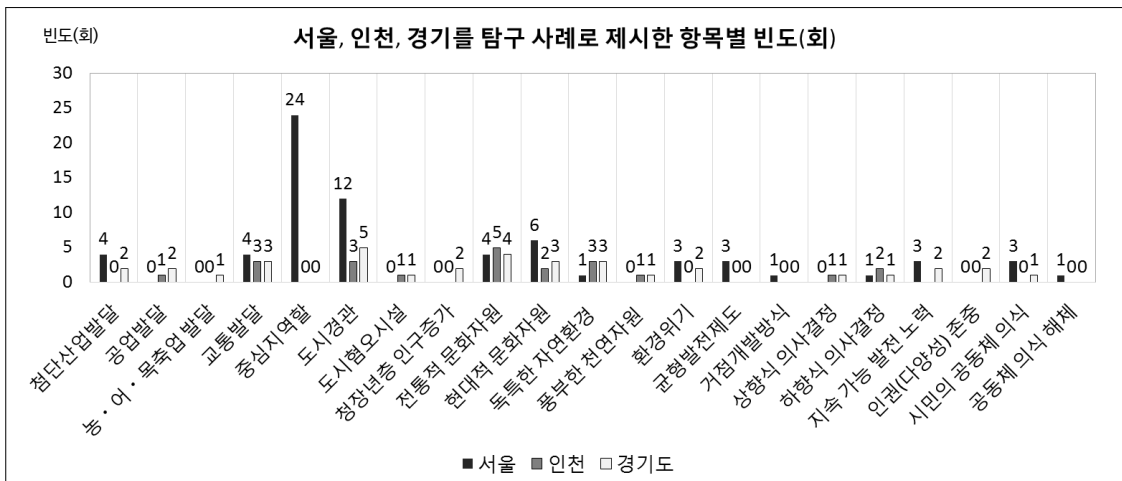


그림 4.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도를 탐구 사례로 제시한 항목

경관과 관련하여 고양, 교통 발달과 관련하여 평택, 첨단 산업 발달과 관련하여 성남이 탐구 사례 지역으로 2회 이상 제시된다. 이상에서 볼 때, 인천은 전통적 문화자원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교통 발달 도시로 재현된다. 경기도는 다양한 항목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되지만 특정 항목에 집중되지 않아 특정한 이미지로 표상되지 않고 전통적 문화, 현대적 문화,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복합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2. 비수도권 지방의 이미지

비수도권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독특한 자연 환경에 관한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 농·어·목축업 발달, 전통적 문화 자원, 촌락 경관, 공업 발달, 풍부한 천연 자원의 탐구 사례로 자주 소개된다. 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하지 않고 비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다룬 경우는 공업 쇠퇴, 도시 쇠퇴, 촌락 경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제 사회 문제 참여 관련 항목이다. 반면, 도시 혐오 시설, 하향식 의사결정, 공동체 의식 저하 항목은 비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소개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비수도권은 주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연환경이 풍부한 관광지이자, 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고 있어 지자체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촌락이미지로 표상된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광역시·특별자치시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중심지 역할, 도시경관(구조)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다. 이들 지역은 공업 쇠퇴, 농·어·목축업 발달, 도시 쇠퇴, 도시 혐오 시설, 환경 위기, 촌락 경관, 인권 존중, 공동체 의식 저하, 국제 사회 문제 참여 항목의 사례로는 다루지 않는다.

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횡수는 적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중심지 역할, 교통 발달, 도시 경관, 현대 문화 자원, 독특한 자연 환경, 공업 발달, 상향식 의사결정 등 다양한 내용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대구는 공업 발달과 전통 문화, 중심지 역할과 관련한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다. 반면 광주, 대전은 첨단 산업 발달, 대전을 도시 경관, 울산은 공업 발달 등 주로 1-2가지 하위 항목의 사례로만 제시된다. 이상에서 볼 때 부산과 대구는 전체적으로 자연 환경과 전통적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자 공업이 발달한 지방거점도시라는 복합적 이미지로 그려진 한편, 광주, 대구, 울산은 특정 산업이나 교통이 발달한 도시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재현된다.

비수도권의 시·군의 경우 독특한 자연 환경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134회나 제시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속 가능발전 노력, 농·어·목축업의 발달, 전통적 문화경관, 촌락 경관 항목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20회 이상 다루어진다. 수도권 지방과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가 도시 쇠퇴, 공업 쇠퇴 항목의 사례로 한 차례도 제시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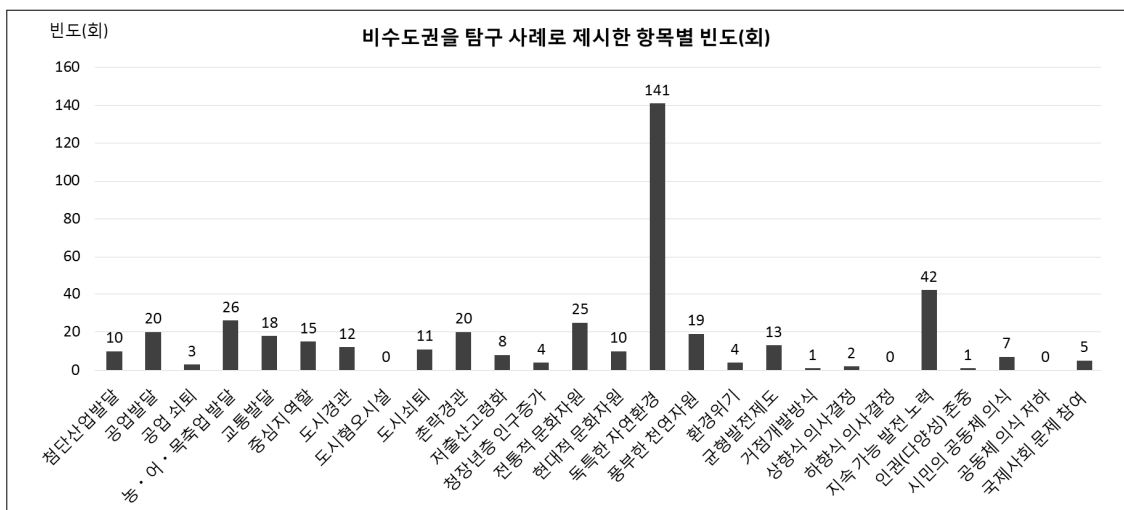


그림 5. 비수도권을 탐구 사례로 제시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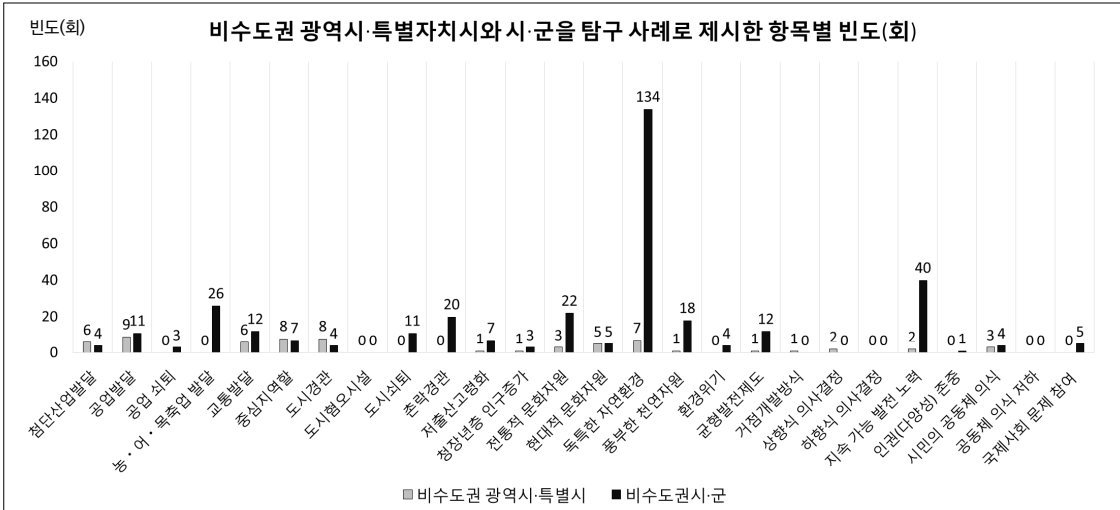


그림 6. 비수도권의 광역시·특별자치시와 시·군을 탐구 사례로 제시한 항목

않은 반면, 비수도권 시·군은 도시 쇠퇴, 공업 쇠퇴의 사례로 제시된다. 경북 울릉이 국제 사회 문제 항목의 탐구 사례로 5회 제시되는데, 이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울릉군 차원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 한국의 영토 문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의 시·군은 독특한 자연 환경 혹은 전통적 문화 경관을 지닌 관광지이자 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고 주로 농·어·목축업이 발달한 촌락이미지로 재현된다.

비수도권의 시·군을 강원 지방,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미지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 지방은 독특한 자연 환경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 45번이나 제시되고, 교통 발달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도 제시된다. 도시 쇠퇴 항목과 관련하여 3종의 「한국지리」에서 총 11번의 탐구 사례가 제시되는데 강원 지방이 8번이나 그 사례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시·군에서 환경 위기 관련 탐구 사례가 4회 제시되었는데, 그 중 3회가 강원 지방을 사례 지역으로 삼고 있다. 물론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농·어·목축업 발달, 풍부한 천연 자원, 지속 가능 발전 노력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도 많이 제시된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강원 지방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려지는 반면, 주민의 삶터로서는 쇠퇴하고 있는 촌락이자 환경 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표상된다.

강원 지방에서 탐구 사례로 2회 이상 제시된 시·군은 강릉, 평창, 정선, 영월, 태백, 화천, 고성, 철원, 양구, 양양, 춘천, 삼척이다. 그 중에서 강릉, 평창, 태백이 탐구 사례로 각각 14회씩 제시된다. 강릉은 독특한 자연 환경과 관련된 탐구 사례(12회)와 풍부한 천연 자원 사례(2회)로 제시되어 관광지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 평창은 농·목축업이 발달한 촌락(8회)과 독특한 자연환경의 탐구 사례(6회)로 다루어져 고위평탄면의 지형을 이용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조된다. 태백은 도시 쇠퇴(5회), 공업 쇠퇴(2회),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3회), 농·어·목축업 발달(2회), 촌락 경관(2회) 등의 탐구 사례로 제시되어 공업과 도시가 쇠퇴한 지역이지만 지역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촌락 이미지로 그려진다. 정선과 영월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으로 지역 개발을 꾀하는 지역 사례로, 화천은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꾀하는 지역 사례로 제시되고, 삼척도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력 사례로 제시된다. 그리고 독특한 자연 환경의 탐구 사례 지역으로 강원 고성(5회), 철원(3회), 양구(2회), 양양(2회), 춘천(2회)이 제시된다.

충청 지방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자연 환경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 많이 제시되지만 다른 지방에 비하면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균형 발전 제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의 시·군에서 총 12회 제시되

는데 충청 지방이 10회나 사례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충청 지방은 교통 발달, 풍부한 천연 자원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도 자주 제시된다. 공업 발달과 농·어·목축업 발달, 중심지 역할과 촌락 경관과 관련한 탐구 사례 지역으로 각각 4회씩 제시된다.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도시 쇠퇴 관련한 탐구 사례가 총 11회 제시되는데, 강원 지방이 8회, 충청 지방이 3회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다. 충청 지방은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의 사례로도 자주 다루어진다. 이상에서 볼 때 충청 지방은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진 지역이자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재현된다.

충청 지방에서 탐구 사례로 2회 이상 제시된 시·군은 충북의 청주, 단양, 충주, 충남의 천안, 아산, 보령, 당진, 태안, 공주, 예산, 홍성이다. 그 중에서 단양과 보령은 충청 지방 중에서 탐구 사례 지역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지역이다. 단양은 농·어·목축업 발달(2회), 독특한 자연환경(4회), 풍부한 천연 자원(2회)과 관련된 탐구 사례로 제시되고, 보령은 독특한 자연환경(4회),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4회)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아산은 촌락지역이지만 고속철도 개통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다루어져 도시와 촌락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역으로 그려진다. 청주는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 천안은 중심지 역할의 사례로, 당진은 공업 발달 지역 사례로, 태안과 충주는 독특한 자연환경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균형발전제도의 탐구 사례로 예산과 홍성이 2회씩 제시된다. 공주는 과거에 발달했지만 교통 발달로 쇠퇴한 지역 사례로 제시된다.

호남 지방은 강원 지방 다음으로 독특한 자연 환경,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의 사례로 많이 제시된다. 그리고 전통적 문화 자산, 촌락 경관, 농·어·목축업 발달 사례로도 자주 다루어진다.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한 탐구 사례가 총 8회 제시되는데, 호남지방이 4회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이처럼 호남 지방은 전체적으로 전통적 문화와 독특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이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호남 지방에서 탐구 사례로 2회 이상 제시된 시·군은

김제, 광양, 보성, 전주, 군산, 구례, 고창, 무주, 부안, 담양, 완도, 진도, 해남, 순천, 임실이다. 이들 시·군이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된 빈도는 다른 지방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나마 김제는 독특한 자연환경(3회), 촌락 경관(2회)의 탐구 사례로 5회 제시되고, 순천은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의 탐구 사례로, 구례는 독특한 자연환경의 탐구 사례로 각각 4회씩 제시된다. 임실은 지자체의 지속 가능 발전 노력에 관한 사례로, 전주와 군산은 전통적 문화 자원의 사례로, 보성은 농·어·목축업 발달의 사례로 제시된다. 고창, 무주, 부안, 담양, 완도, 진도, 해남은 독특한 자연 환경의 사례로 다루어진다.

영남 지방도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주로 독특한 자연환경, 전통적 문화 자산, 촌락 경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그러나 영남 지방은 다른 지방과 달리 첨단 산업 발달, 공업 발달과 관련된 사례 지역으로 다루어지면서 독특한 자연환경과 전통적 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영남 지방에서 탐구 사례로 2회 이상 제시된 시·군은 울릉, 안동, 경주, 김해, 경남 고성, 포항, 남해이다. 그 중에서 울릉이 독특한 자연환경(6회), 풍부한 천연자원(2회), 국제사회 문제 참여(5회) 등 영남 지방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다. 안동은 전통적 문화자원(5회)과 촌락 경관(2회)의 탐구 사례로 제시되고, 경주는 독특한 자연환경(2회), 전통적 문화자원(2회)의 탐구 사례로 제시되어 독특한 자연환경과 전통적 문화자원이 어우러진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김해는 부산에 인접하여 발전하는 다문화 도시이미지로 재현된다. 영남 지방 중 경남 고성, 포항, 남해는 독특한 자연환경에 관한 탐구 사례로 제시된다.

제주 지방은 독특한 자연환경, 전통적 문화 자산에 관한 탐구 사례로 많이 소개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의 사례로도 자주 다루어진다. 이처럼 제주 지방은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반면, 생활 터전으로서 이미지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의 탐구 사례로

제시된 각 지방에 대한 탐구 항목을 분석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종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특정 지방을 다룬 탐구 사례는 431번이고, 이들 사례가 차지하는 분량은 135.22쪽이다. 우리나라 전체 160개 시·군 중 112개 시·군은 탐구 사례 지역으로 제시되고, 48개 시·군은 제시되지 않는다. 탐구 사례로 제시한 빈도는 수도권이 21.4%, 비수도권이 78.6%이고, 분량은 수도권이 26.2%, 비수도권이 73.8%이다. 시·도별 빈도를 보면 탐구 사례 지역으로 강원도가 가장 많이 제시되고, 서울시가 두 번째로 제시된다. 분량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다.

탐구 사례 지역으로 10회 이상 다뤄진 곳은 서울, 제주, 부산, 강릉, 평창, 인천, 대구, 울릉이다. 5회-9회 다뤄진 곳은 16개 시·군이고, 2-4회 다뤄진 곳은 47개 시·군이며, 한번 다뤄진 시·군은 40개에 달한다. 10회 이상 언급된 곳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반면, 1회 이상 제시되지 못한 곳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드러내기 어렵다.

둘째, 측정 항목별로 보면 인지적 요소에 관한 탐구 사례가 규범적 요소에 관한 사례보다 훨씬 많다. 인지적 요소 중에서도 자연 환경에 관한 탐구 사례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도시 생활, 산업 발달, 문화 자원 순으로 다루어진다. 자연 환경 중에서도 독특한 자연 환경에 관한 사례 지역이 많이 제시되고, 도시 생활에서는 중심지 역할에 관한 사례 지역이 많이 다루어진다. 규범적 요소 중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가장 많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진 지속 가능 발전 노력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셋째, 탐구 항목을 통해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미지는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도시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풍부한 문화자원을 지니고 첨단 산업이 발달한 한국의 중심지로 역할 하는 도시이미지로 그려진다. 한편, 비수도권은 주로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연환경이 풍부한 관광지이자, 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고 있어 지자체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촌락이미지로 그려진다.

넷째, 수도권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이미지는 다

르게 나타난다. 서울은 중심지 역할, 도시 발달, 첨단 산업 발전 등의 탐구 사례로 많이 제시되어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중심지 이미지로 재현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중심지 이미지로 묘사되지 않는다. 인천은 전통적 문화자원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교통 발달 도시로 그려지고, 경기도는 전통적 문화, 현대적 문화,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도시와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표상된다.

다섯째, 비수도권 중 광역시·특별자치시는 자연 환경과 전통적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면서도 특정 산업이나 교통이 발달한 지방 거점 도시 이미지로 재현되어 비수도권의 다른 시·군 이미지와 다르다. 광역시별로도 차이가 난다. 부산과 대구는 전체적으로 자연 환경과 전통적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이자 공업이 발달한 지방거점 도시라는 복합적 이미지로 그려진 한편, 광주, 대구, 울산은 특정한 특정 산업이나 교통이 발달한 도시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여섯째, 비수도권의 시·군을 강원 지방, 충청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제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미지 차이가 나타난다. 강원 지방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매력적인 관광지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려지는 반면, 주민의 삶터로서는 쇠퇴하고 있는 촌락이자 환경 위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충청 지방은 도시가 쇠퇴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지만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는 지역이미지로 재현된다. 한편, 호남 지방은 전통적 문화와 독특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이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시달리지만 각 지자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미지로 표상된다. 영남 지방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전통적 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리고 제주 지방은 자연과 문화가 풍부한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생활 터전으로서 이미지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현대적·중심적·도시 생활·첨단산업·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묘사되고, 비수도권 지방은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적·쇠퇴하는·촌락 생활·농업·자연 환경이 풍부한 지역으로 그려진다. 지

방 이미지는 특정 지방에 관한 특정 인상이나 단편적인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제시된 각 지방에 관한 한 문장이나 한 장의 사진도 지방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적 범주에서 비수도권은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관광지나 촌락지역으로 등치되기 쉽다. 각 지방은 다른 곳과 구분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계를 가진 실체로서 중앙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주변화한 곳이 아니라 특수성을 지닌 정주공동체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방이 독자성과 개별성을 확보한 삶터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지리학계가 먼저 각 지방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발견하고 삶터로서 가치를 찾아 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는 총 8개 대단원, 28개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은 I.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II.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 2) 교과서별 분석 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	분석 대상 자료	
	탐구 활동 자료	심화·보충자료
박철웅 외, 2019, 한국지리, 미래엔	탐구 활동	지리가 답하다. 일상과 통하다. 주제로 정리하기, 본문 보조 자료
신정엽 외, 2019,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탐구 활동	사례 더하기, 지리 여행, 지식 키우기, 창의 융합 키우기, 본문 보조 자료, 대단원 마무리
유성종 외, 2019, 한국지리, 비상	탐구 활동	사례 더하기, 창의융합 주제 넓히기, 본문 보조 자료, 단원 마무리

- 3) 분석 단위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비수도권은 다시 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으로 구분한다. 수도권·비수도권의 하위 지방은 「한국지리」 교과서의 대단원 「VII.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에서 구분한 지역 구분에 따른다. 즉, 「한국지리」 교과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원지방, 충청지방, 호남지방, 영남

지방, 제주도로 구성된다. 교과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지 않고 제주도를 탐구 사례로 제시한 경우가 많아서 본 연구에서도 제주도는 하나의 지역으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영철·최낙진, 2008, 중앙일간지에 나타난 제주 이미지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8-38.

김병연, 2018, “지역지리 교육에서 ‘지역’ 이해의 한계와 대안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222-236.

김병철, 2013, “영화에 재현되는 지역성의 의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3), 35-52.

김정현, 2004,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이미지 인식 실태 및 과제”, 행정논총, 42(4), 299-328.

나진희·류용재, 2023, “학벌과 출신 지역의 미디어 재현과 청년세대의 감정구조: 지역 청년과 지방대생의 취업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6(1), 1-34.

박선미, 2023,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역격차 내용 특성과 문제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4), 75-89.

박천일·안민호, 2005,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개토론회 자료집.

안민호, 박천일, 2006, “다차원분석법을 활용한 서울과 8개 주요 도시 이미지 비교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 7(4), 95-113.

안상준, 2011, “독일 지방사 연구의 다양한 지평”,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363-395.

양민욱·김혜선·이지하, 2015, “지방대학교 대학생으로 살아가기”, 청소년학연구, 22(1), 267-286.

이상호, 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12, 126-137.

이용기, 2015,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청람사학, 24, 1-28.

이훈상, 2000, 타자로서의 지방과 중앙의 체계모니,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史研究會 編,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361-397), 경인문화사.

임영호, 2002, “텔레비전 오락물에 나타난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정체성 구상”, 한국언론학보, 46(2), 576-605.

주제원, 2020, “만들어진 지역성: 상상된 고향과 내부 오리엔탈리즘”, 한국방송학보, 34(5), 186-218.

최영재, 2009, 강원도 비전 이미지와 브랜드 창출 전략, 강원 발전연구원.
한충민, 1993, “한국의 대외이미지와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연구, 15(1), 241-264.
Boulding, K., 1956, *The Imag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
Fan, Y., 2006, Branding the nation: what is being branded?,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2(1), 5-14.
Hall, S., 1997, Spectacle of the ‘Other’,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Sage, London, 223-279.
Harvey, D., 2009, *Social justice and the city*, Univ of Georgia Press, Athens.
Martin, I. M. and Eroglu, S., 1993, Measur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country imag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8, 191-210.
Orbaiz, L. V. and Papadopoulos, N., 2003, Toward a model of consumer receptivity of foreign and domestic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15(3), 101-126.
Schorn-Schütte. L., 1984, Territorialgeschichte, Provinzialgeschichte – Landesgeschichte, Regionalgeschichte, in H. Jäger u.a.(ed.), *Civitas Communitas*, Böhlau, 393-396.

Scott, W. A. 1966. Psychological and social correlates of international images, in Kelman, H. C.(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70-103.

〈교과서 자료〉

박철웅 외, 2019, 한국지리, 미래엔.
신정엽 외, 2019,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유성종 외, 2019, 한국지리, 비상.

접 수 일 : 2024. 08. 08

수 정 일 : 2024. 08. 25

게재확정일 : 2024. 08. 25

교신: 박선미,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sminha@inha.ac.kr, 032-860-7864)

Correspondence: Sunmee Park, sminha@inha.ac.kr